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 곧바로 만들어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의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독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정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더 필요한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독자는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다.

[A]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한다. 학습한 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해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도 한다. 또한 원래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왜곡되게 편집된 정보가 있는지, ㉡ 출처는 명확한지 등을 점검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독자는 ㉢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글이나 서적을 통해 내용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1.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 ②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 ③ 독자는 자신이 읽고자 하는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④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의 검토를 위해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독자가 대상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2.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하면서 균형 있게 자료를 생성한다.
- ② 독자가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 ③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있는 정보는 일괄적으로 제거된다.
- ④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의 변화 가능성은 차단된다.
- ⑤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보기>는 학생의 독서 일지이다. ㉠~㉢와 관련하여 학생의 읽기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체독(體讀)’이라는 독서 방법이 궁금해서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생성해서 읽어 보았다. 생성된 자료에 ‘체독은 글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는 읽기입니다.’라는 설명이 있었다.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라는 말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해서 알아보았다. 생성된 자료에서 ‘동양인의 높은 정신 수준에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 체독에 관한 동양의 다양한 사례를 더 생성하여 읽어 보았다. 자료를 읽다 보니 동양의 사례만 찾아 보고 있는 것 같아, 방향을 달리하여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체독 사례를 생성해서 읽어 보았다. 체독에 대해 알게 된 후 인공지능이 제공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주말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보아야겠다.

- 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②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을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③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④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를 읽은 후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⑤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책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 것은, ㉠을 점검하는 것에 해당하겠군.